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2016. 05. 16. ~ 05. 22. 주간

85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동향 (관측정보)

· 마늘 · 양파 · 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여수시, 돌산갓김치 · 거문도해풍쑥 해외상표 등록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마늘 · 양파의 식품향료 소재 생산을 위한 자원 활용

· 전남지역 과원 잡초발생양상 및 관리기술

정책동향

·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 · 소과일 생산 확대한다

· 소비자 신뢰, 양곡표시제 순회교육 등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해외농업정보

· 미국서 부는 '혼밥' 열풍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 5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음
▸ 강수량은 평년(1~6mm)보다 적겠음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 8

▸ 주의보 : 갈색날개매미충, 배 검은별무늬병
▸ 예 보 : 벼 못자리 병해충, 과수 해충

❀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9

▸ 마늘·양파·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2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4

▸ 전남도, 농기계 임대사업, 일손 부족한 농촌에 효자
▸ 곡성군, 멜론 조기 출하로 농가 소득 높여
▸ 강진군, 맞춤형소득사업 통한 한우농가 소득 최고!
▸ 무안군, '황토랑 쌀' 서울 세계로하나로마트 납품계약 체결
▸ 장성군, 드림빌 '귀농·귀촌 활성화 우수마을' 수상
▸ 신안군, 유기농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조성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1

▸ 합천 햇양파 24톤 대만 수출…올해 2,000톤 공급 예정

▸ 여수시, 돌산갓김치·거문도해풍쑥 해외상표 등록

▸ 중국 콜드체인구축사업 운송지원 본격 개시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5

▸ 마늘·양파의 식품향료 소재 생산을 위한 자원 활용

▸ 유통채널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구마 포장박스 구성요소 및 표시사항 분석

▸ 직거래 채널별 판매비율 수준 및 온라인 경력에 따른 소득 증감률

▸ 전남지역 과원 잡초발생양상 및 관리기술

▸ 볍씨 파종기 이용한 직파재배로 농업 경영력 높인다

▸ 톡쏘는 갓! 쌉싸름한 상추! 토종 엽채류 맛도 기능성도 up

▸ 갈색날개매미충 발생, 적기방제 당부

▸ 고구마 재배 기계화로 노동력 28, 생산비용 22% 줄인다

▸ 발효사료용 겉보리, 출수기 35~37일에 수확하세요

▸ 맥류 붉은곰팡이병 예찰로 피해 줄인다

▸ 향긋한 곰취 새 품종 선보인다

❀ 정책 동향 39

▸ 스마트 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기술 세미나

▸ 수도권 도시민 대상 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교육 실시

▸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소과일 생산 확대한다

▸ 소비자 신뢰, 양곡표시제 순회교육 등 현장에서 답을 찾다

❀ 해외 농업정보 44

▸ 미국서 부는 '혼밥' 열풍

▸ 이란 먹거리 시장 현황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5. 16.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거래인들의 숏포지션 커버(과매도 청산)로 상승 마감하였음.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대두 롱포지션과 옥수수 숏포지션의 스프레드 거래와 숏커버링세 유입 등 기술적인 거래로 가격이 지원을 받아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하였음.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금주 초반 가격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거래로 금일 하락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7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2016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 유기농 명인 신청하세요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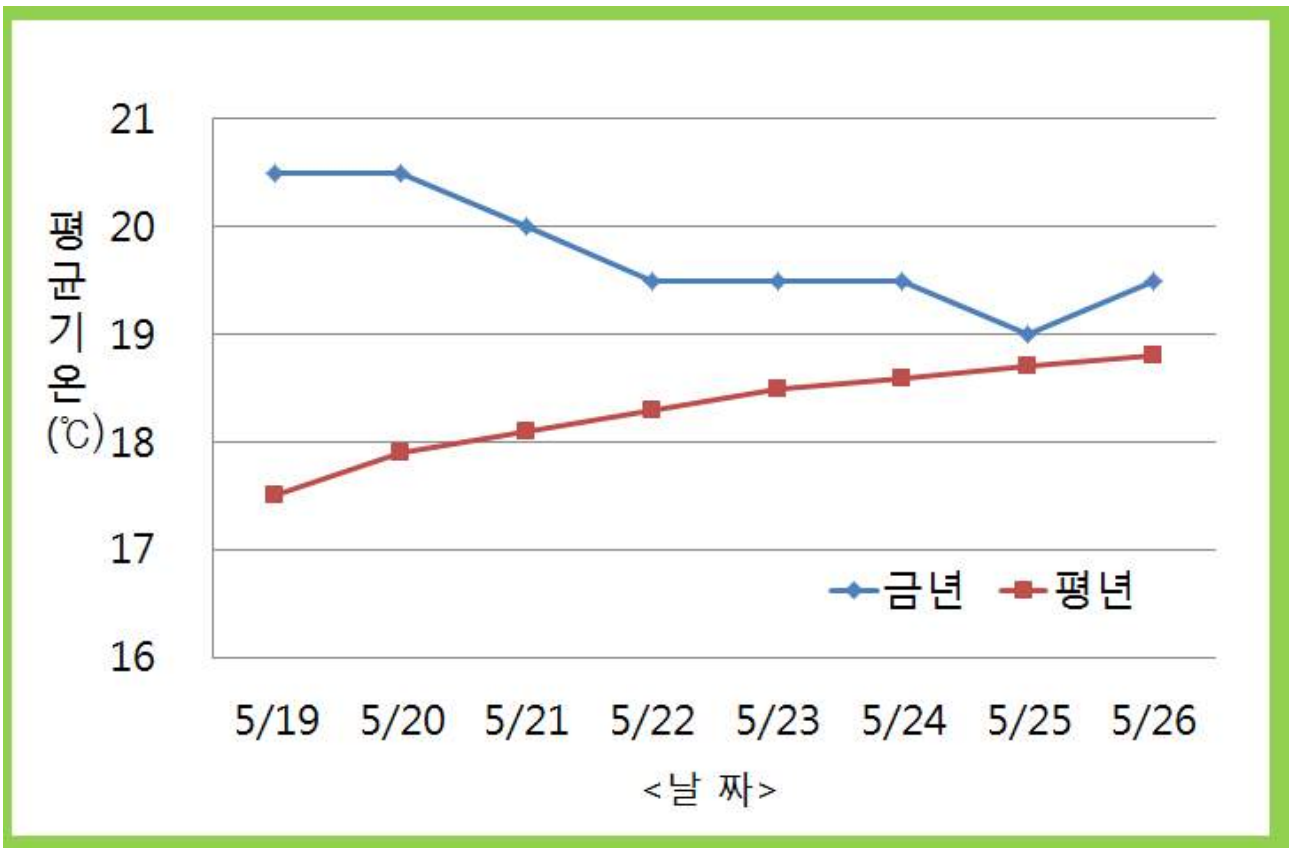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1.1	19.2	1.9	26.9	25.2	1.7	15.4	14.0	1.4	2.1
5. 19.(목)	22.0	18.4	3.6	29.0	24.4	4.6	15.0	13.2	1.8	3.2
5. 20.(금)	22.0	18.7	3.3	29.0	24.8	4.2	15.0	13.5	1.5	3.0
5. 21.(토)	21.5	19.0	2.5	28.0	25.1	2.9	15.0	13.7	1.3	2.3
5. 22.(일)	20.5	19.2	1.3	25.0	25.2	-0.2	16.0	13.9	2.1	1.8
5. 23.(월)	20.5	19.4	1.1	25.0	25.3	-0.3	16.0	14.1	1.9	1.7
5. 24.(화)	21.0	19.5	1.5	26.0	25.4	0.6	16.0	14.2	1.8	1.5
5. 25.(수)	20.5	19.6	0.9	26.0	25.5	0.5	15.0	14.5	0.5	1.3
5. 26.(목)	21.0	19.7	1.3	27.0	25.6	1.4	15.0	14.6	0.4	1.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9.8	18.3	1.5	24.1	23.3	0.9	15.4	14.4	1.0	2.3
5. 19.(목)	20.5	17.5	3.0	26.0	22.6	3.4	15.0	13.6	1.4	3.3
5. 20.(금)	20.5	17.9	2.6	26.0	22.9	3.1	15.0	13.9	1.1	2.8
5. 21.(토)	20.0	18.1	1.9	25.0	23.1	1.9	15.0	14.1	0.9	2.5
5. 22.(일)	19.5	18.3	1.2	23.0	23.3	-0.3	16.0	14.3	1.7	2.0
5. 23.(월)	19.5	18.5	1.0	23.0	23.4	-0.4	16.0	14.5	1.5	2.0
5. 24.(화)	19.5	18.6	0.9	23.0	23.5	-0.5	16.0	14.6	1.4	1.8
5. 25.(수)	19.0	18.7	0.3	23.0	23.6	-0.6	15.0	14.8	0.2	1.7
5. 26.(목)	19.5	18.8	0.7	24.0	23.8	0.2	15.0	15.0	0.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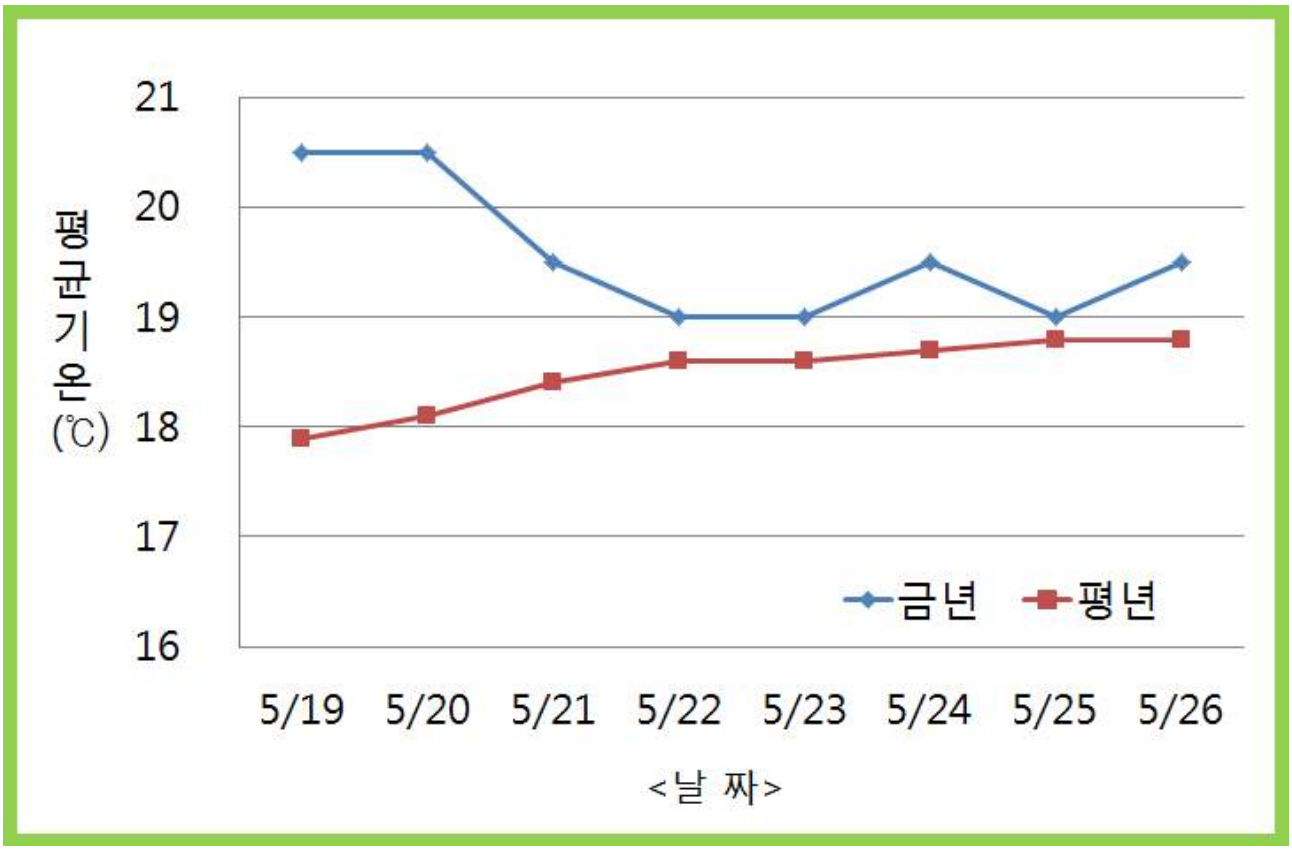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9.6	18.5	1.1	22.8	22.4	0.4	16.4	15.3	1.1	4.5
5. 19.(목)	20.5	17.9	2.6	25.0	21.7	3.3	16.0	14.7	1.3	5.5
5. 20.(금)	20.5	18.1	2.4	25.0	22.1	2.9	16.0	14.8	1.2	5.3
5. 21.(토)	19.5	18.4	1.1	23.0	22.3	0.7	16.0	15.1	0.9	4.3
5. 22.(일)	19.0	18.6	0.4	21.0	22.5	-1.5	17.0	15.3	1.7	4.0
5. 23.(월)	19.0	18.6	0.4	21.0	22.5	-1.5	17.0	15.4	1.6	4.4
5. 24.(화)	19.5	18.7	0.8	22.0	22.6	-0.6	17.0	15.5	1.5	4.1
5. 25.(수)	19.0	18.8	0.2	22.0	22.6	-0.6	16.0	15.6	0.4	3.9
5. 26.(목)	19.5	18.8	0.7	23.0	22.6	0.4	16.0	15.7	0.3	4.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5월 예보)

농촌진흥청은 벼 종자전염성 병해충, 마늘·양파와 시설재배 작물 및 과수 등의 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발표하오니 농작물 관리를 잘하여 주기바랍니다.

❑ 갈색날개매미충 : 주의보

○ 알이 깨어 나오는 시기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충남·전북 일부지역에 월동알 밀도가 높으므로 유충이 깨어 나오면 5월 중·하순에 적용 약제로 방제

❑ 벼 못자리 병해충 : 예보

○ 육묘 시 방충망 등으로 애멸구 유입을 차단하고 이앙 당일 상자에 입제 농약을 뿌려 벼물바구미, 벼잎벌레, 잎도열병 등을 동시에 방제한 후 모내기

❑ 배 검은별무늬병 : 주의보

○ 배꽃 개화기가 빨랐고 개화기에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아 감염위험이 높아졌으므로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의 감염예측정보를 활용하여 병반이 보이기 전에 예방위주로 보호 살균제 방제

❑ 과수 해충 : 예보

○ 복숭아순나방, 꼬마배나무이, 진딧물류 등은 꽃이 진 후 적용약제로 방제하고, 배가루깍지벌레,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은 약충이 깨어 나오면 적용약제로 방제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마늘·양파·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 마늘 생산전망

○ 2016년 생산량 29만 2천톤 내외 추정

- 2016년산 마늘의 전체 재배면적은 2015년산보다 1%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9% 감소한 20,758ha로 발표되었다.

- 2016년산 마늘 생육은 전년 대비 '좋음' 54, '비슷함' 38, '나쁨' 8%로 조사되었고, 현재까지 기상여건이 좋아 생육은 양호하며, 특히 난지형 대서종 마늘의 생육은 매우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6년산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생육 상황이 좋고, 난지형 대서종 마늘 재배 비중이 늘어 2015년산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6년산 난지형 마늘 가운데 대서종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남도종 보다 생산량이 더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 단, 2015년산 마늘 생육 상황이 4월까지는 양호하였으나, 잦은 강우와 5월 고온으로 예상단수가 감소하였고, 2016년산도 5월 기상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마늘 가격전망

○ 5월 난지형 마늘 가격은 약보합세 전망

- 5월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은 국내산 마늘 재고량이 적어 평년(3,950원)보다 높으나, 햇마늘 출하가 시작되면서 상품 kg당 5,200~5,700원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 양파 생산전망

○ 2016년산 조생종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 2016년산 조생종 양파의 10a 수확량은 2015년산보다 5% 적은 5,952kg이 될 것으로 조사되고, 전남은 2% 증가하나, 제주는 잦은 비로 인한 습해 등으로 2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생종 양파의 생산량은 단수가 감소하나,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2015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41, 37% 많은 17만 8천톤으로 전망된다.

○ 2016년산 중만생종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생육상황 조사결과, 2015년산 대비 '좋음'이 57%로 생육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생산량은 2015년산 보다 18%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7% 감소한 114만 6천톤으로 전망된다.

❑ 양파 가격전망

○ 5월 도매가격 4월 하순 및 평년과 비슷할 전망

- 5월 출하량은 양파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9% 많으나, 평년보다 4% 감소한 17만 4천톤으로 추정된다.

- 5월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으나, 4월 하순 및 평년과 비슷한 700원/kg 내외로 전망된다.

- 5월까지의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만생종 양파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6월 가격은 5월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파 출하전망

○ 5월 대파 출하량 전년 대비 4% 증가

- 5월 출하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나, 단수는 4% 증가하여, 출하량은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단수는 봄대파 생육기 기상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기는 5, 호남과 영남은 각각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파 생산전망

○ 3~6월 대파 정식면적 전년 대비 증가

- 3~6월 대파 정식면적(7월~내년 5월 출하분)은 전년 출하기 대파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기·강원·호남은 금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충청과 영남은 출하가 완료된 포전에서 지속적으로 대파 정식이 이루어지면서 전월 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 대파 가격전망

○ 5월 도매가격 4월 대비 하락 전망

- 5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1,700~2,000원/kg으로 평년 상품 1,370원보다 높으나, 전년 상품 2,010원과 4월 상품 2,090원 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5월 가격은 월동대파 조기 종료와 출하량 감소로 상순까지 전월 대비 강보합세가 전망되나, 봄대파 출하량이 증가하는 중순부터 점차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5. 16.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16)	1주일전 (05/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0,650	41,817	↑ 10.9	↓ 13.4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7,000	186,467	↑ 9.5	↓ 19.6
	고구마(밤)	10kg	30,200	30,200	29,200	31,200	30,400	↑ 3.2	↓ 0.7
	감자(수미)	20kg	43,400	27,800	31,600	54,200	33,087	↓ 19.9	↑ 31.2
채소류	배추(봄)	1kg	1,200	1,140	-	800	646	↑ 50.0	↑ 85.8
	양배추	10kg	12,600	12,100	10,100	8,050	6,737	↑ 56.5	↑ 87.0
	오이(다다기계통)	10kg	14,667	15,000	22,250	16,389	18,236	↓ 10.5	↓ 19.6
	애호박	8kg	11,800	11,200	14,300	10,900	12,093	↑ 8.3	↓ 2.4
	토마토	10kg	17,800	19,200	30,750	22,850	23,217	↓ 22.1	↓ 23.3
	당근	20kg	34,000	27,800	27,700	24,500	30,860	↑ 38.8	↑ 10.2
	건고추(화건)	60kg	710,000	720,000	733,500	820,000	832,000	↓ 13.4	↓ 14.7
	풋고추	10kg	41,000	51,600	42,200	46,500	44,327	↓ 11.8	↓ 7.5
	마늘(깐마늘)	20kg	175,000	175,000	169,000	105,350	118,170	↑ 66.1	↑ 48.1
	양파	20kg	13,600	14,600	31,500	14,650	13,643	↓ 7.2	↓ 0.3
	대파	1kg	2,430	2,370	2,430	1,848	1,533	↑ 31.5	↑ 58.5
	파프리카	5kg	17,600	20,600	28,200	17,800	21,413	↓ 1.1	↓ 17.8
	멜론	8kg	26,000	24,800	27,050	28,050	38,200	↓ 7.3	↓ 31.9
	방울토마토	5kg	14,600	16,200	24,400	17,150	17,601	↓ 14.9	↓ 17.1
	수박	1개	15,200	17,200	16,800	16,750	16,803	↓ 9.3	↓ 9.5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6,600	37,000	37,000	43,867	52,907	↓ 16.6	↓ 30.8
	배(신고)	15kg	44,400	44,000	44,000	40,600	47,462	↑ 9.4	↓ 6.5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16)	1주일전 (05/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5,000	525,000	529,000	532,000	567,889	▼ 1.3	▼ 7.6
	느타리버섯	2kg	13,800	13,600	13,700	12,800	11,533	▲ 7.8	▲ 19.7
	새송이버섯	2kg	8,200	8,400	8,250	8,400	8,307	▼ 2.4	▼ 1.3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302	7,502	7,737	6,499	6,042	▲ 12.4	▲ 20.9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02	1,834	1,813	2,128	1,935	▼ 5.9	▲ 3.5
	닭고기	1kg	4,942	5,132	5,262	5,367	5,650	▼ 7.9	▼ 12.5
	계란(특란)	30개	4,906	5,330	5,355	5,972	5,875	▼ 17.8	▼ 16.5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87	0.0	▲ 6.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5. 16.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948 천원	5,859 천원	3,995 천원	▲ 1.5	▲ 48.9
	거세	7,078 〃	7,073 〃	5,649 〃	▲ 0.1	▲ 25.3
송아지 (6~7월)	암	3,166 〃	2,972 〃	1,621 〃	▲ 6.5	▲ 95.3
	수	3,846 〃	3,631 〃	2,355 〃	▲ 5.9	▲ 63.3
육우(600Kg)		3,304 〃	3,580 〃	3,348 〃	▼ 7.7	▼ 1.3
젖소수송아지(7일령)		310 〃	302 〃	176 〃	▲ 2.6	▲ 76.1
돼지(110kg)		404 〃	386 〃	465 〃	▲ 4.7	▼ 13.1
육계(원/kg)		1,144 원	1,238 원	1,527 원	▼ 7.6	▼ 25.1
계란(원/특란10개)		930 〃	988 〃	1,366 〃	▼ 5.9	▼ 31.9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 28.5

※ '14년 경영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전남도, 농기계 임대사업, 일손 부족한 농촌에 효자

– 55곳서 7천 30대 보유…임대농기계 면세유 공급으로 유류대 절감 –

○ 전라남도는 모내기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비용절감은 물론 농촌 일손부족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 전남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목포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55개소가 운영, 7천 30대의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5만 4천여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다. 주요 임대 농기계는 파종과 이식 등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농기계와 여성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등이다.

○ 임대 농기계는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장 3일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 작목반에서 거주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면 된다.

○ 임대료는 시·군 조례에서 기종별로 적정 가격을 정하거나 별도 추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 고시한 가격으로 징수한다.

○ 특히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도 일반 농업용 기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용 면세유 공급 요령에 따라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부과 세금을 면제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 실제 임대가 가장 많은 관리기(5마력)의 경우 1일 사용 시 휘발유 16ℓ 기준, 면세유 가격이 8천 480원으로 일반가격의 40% 수준이다.

○ 임대 농기계 면세유 공급은 임대 농가에서 농기계임대계약서를 첨부해 거주지 농협 등 면세유 취급소에 신청하면 된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더는데도 큰 역할을 하면서 농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면 유류도 면세유로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곡성군, 멜론 조기 출하로 농가소득 높여

– 멜론 조기출하 지원 정책으로 농가소득 높이는 선순환 구조 만든다 –

○ ‘2015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상에 빛나는 곡성멜론(기차타고 멜론마을)은 명실 공히 전국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로 꼽힌다.

○ 곡성멜론은 300여 농가 180ha에서 연간 5,400톤(생산액 183억원)이 생산되고 있다. 곡성멜론의 오늘날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동안 맛좋은 멜론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와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 우선 멜론의 생육환경에 알맞도록 노후하우스를 내재해형 신규 하우스로 교체하고 자동화 시설개선 등의 생산기반을 확충했다.

○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시설하우스 벼 윤작과 토양소독에 의한 흙살리기 사업은 오늘날 전국 최고의 멜론을 생산하게 된 밑거름이 됐다.

○ 멜론 생산자단체 스스로의 규정으로 2~3종의 고품질 품종만을 지정해 재배토록 하고 있으며, 당도측정에 의한 판단으로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향이 뛰어난 멜론을 생산하기에 알맞은 곡성의 기후특성도 한몫 했다.

○ 예년의 곡성멜론 첫 출하 시기는 6월이었으나 금년에 더 일찍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은 특히 민선6기 들어서면서 다겹보온커튼과 난방시설 등 멜론 조기재배 시설개선으로 정식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 이 같은 민선6기 곡성군의 멜론 조기출하 지원 정책의 효과로 앞으로 난방시설개선 사업이 더욱 확대되면 본격 출하기간이 기존의 4개월(6~9월)에서 7개월(5~11월)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멜론 재배 농가에서 당초 6월에서 5월로 출하시기를 앞당겨 높은 가격에 출하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출하기간이 9월에서 11월까지로 연장되면서 연간 멜론 1기작에서 2기작 재배로 확대돼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강진군, 맞춤형소득사업 통한 한우농가 소득 최고!

– 지난해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69%로 농가 소득률 최고 –

○ 전남 강진군이 최근 3년간 활발하고도 지속적인 한우산업정책을 펼친 결과, 한우 등급률이 역대 최대치로 급속히 향상되면서 한우농가 소득 또한 성장세인 것으로 확인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 강진군은 지난 2013년, '한우개량 원년'으로 선포한 뒤 한우개량 통합시스템 운영, 우수암소 개체관리 지원, 맞춤형정액공급, 한우 등급향상제 공급,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혈통우 전자경매시장 출하장려금 지원, 우수한우 보유농가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적극 펼쳐왔다.

○ 그 결과 지난 2013년 초 61%대였던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015년말 69%대로 연평균 3%p 상승했다. 최근 한우가격 지속 상승세와 맞물려 역대 최고의 한우농가 소득이 이어지고 있다.

○ 현재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가격은 최고 450만원 대에서 평균 300~35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성우는 생체가격 1kg당 1만원 대로 평균 마리당 600~7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 특히 강진군 여건상 번식우가 많이 사육되고 있고, 그동안 민관이 하나가 돼 추진해온 한우개량 사업이 효과를 내면서 등급률이 높아진 한우농가의 소득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선도농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강진군은 한우분야 군 자체사업으로만 매년 6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 출처 : 강진군

무안군, '황토랑 쌀' 서울 세계로하나로마트 납품계약 체결

– 이달부터 매월 500포(20kg) 이상씩 납품키로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역 대표 쌀인 '황토랑 쌀'이 서울 구로점 세계로하나로마트(회장 양현주)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500포(20kg) 이상씩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세계로하나로마트가 1,400여 평 규모의 서울 구로점을 오픈하면서 고향에서 생산된 쌀(황토랑 쌀)이 밥맛, 안전성, 안정적 공급가능성 등이 우수하여 매월 500포 이상씩을 납품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 무안군 삼향읍이 고향인 세계로하나로마트 양현주 회장은 "기업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고향에 대한 자선사업과 기부사업이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고향 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꾸준히 고향 쌀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한편 '황토랑 쌀'은 무안군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고품질 브랜드 쌀로써, 6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정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 출처 : 무안군

장성군, 드림빌 '귀농·귀촌 활성화 우수마을' 수상

–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귀농마을 모범 보여 –

○ 지난 4. 29. ~ 5. 1.까지 '미래를 보는 귀농, 행복을 꿈꾸는 귀촌'을 주제로 열린 귀농귀촌박람회에서 연합뉴스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75개 지방자치단체 중 9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장성군 농어촌뉴타운 드림빌 마을이 수상했다.

○ 농어촌뉴타운 사업으로 조성된 '드림빌 마을'은 2012년 200세대가 입주한 장성의 대표적인 귀농·귀촌 선두마을로써 주민들 간의 화합이 잘 이뤄져 자치회와 부녀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다.

○ 또한 매년 2회 울력을 통한 제초작업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음악회 개최나 탁구동호회 같은 공동 취미활동을 통해 바쁜 농사일 틈틈이 문화생활도 함께 즐기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부녀회원들은 바자회를 통해 기금을 조성해 마을 단합을 위해 사용하고 각종 생활 체육 활동 참여로 신나는 농촌생활을 이끌어 오고 있다.

○ 박용봉 마을대표는 "우리 마을이 귀농·귀촌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마을주민 모두 기뻐한다"며 "앞으로도 활력과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 다른 귀농인들에게도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장성군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귀농·귀촌 일번지로써 도시민들에게 장성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수도권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석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귀농·귀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 061-390-8431~3)으로 연락하면 된다.

* 출처 : 장성군

신안군, 유기농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조성

- "유기농인증 면적 전년대비 189%까지 확대 목표설정 추진" -

○ 신안군은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규모화, 조직화, 단지화하여 안정적 친환경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수요 충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기농 친환경농업단지를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다.

○ 군에 따르면 금년에는 전년도 3,215ha(유기농 209, 무농약 3,006)보다 127% 증가한 4,072ha(유기농 395, 무농약 3,677)까지 확대하겠다는 친환경농업 인증 목표를 설정하고 ha당 유기농 120~150만원, 유기전환기 100~130만원, 무농약 70~100만원 등 총 3,549백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 특히, 친환경농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녹비작물 종자 공급 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40억원, 새끼우렁이 공급,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직불금 등에 24억원과 이와는 별도로 친환경농업의 적극참여를 유도코자 유기농 인증농가에 ha당 70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자체사업비로 확보 지급하는 등 지원액 총 103억원을 투입해 전남친환경유기농업의 중심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도시 학교급식 납품과 대형유통할인매장, 생협, 친환경식자재 공급업체 등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해 친환경농업이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으로 연계하여 잘 사는 신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신안군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합천 햇양파 24톤 대만 수출…올해 2,000톤 공급 예정

– 지난달 300만 달러 수출 MOU 체결 후속조치…농가 소득증대 기대 –

○ 올해산 합천 햇양파가 대만으로 첫 수출 길에 올랐다.

○ 합천군(군수 하창환)과 합천유통(주)(대표 장문철), 합천호농협(조합장 손덕봉)은 지난 4일 2016년산 합천 햇양파 대만 수출 선적식을 갖고 햇양파 24톤을 선적해 대만으로 보냈다.

○ 이는 합천유통(주)이 대만의 수입업체 Cho-Min vegetables&fruits (대표 Yucheng-Huang), 수출업체 하성기업(주)과 지난 4월 25일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성과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2,000톤 규모의 합천 양파가 대만에 수출될 계획이다.

○ 이번에 수출된 합천 햇양파는 합천유통(주)의 형상선별기를 통한 철저한 선별 작업공정을 거쳐 대만 현지에 공급됐다. 합천양파가 품질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또한 전국 조생종 양파 재배면적 증가와 주산지별 동시 집중 출하로 생산 과잉에 따른 양파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파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창환 합천군수는 “합천 햇양파 대만 수출에 힘입어 수출업체 및 현지 수입업체로부터 신뢰를 구축해 향후 양파라면·즙 등 가공식품 수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새로운 수출 전략작목 발굴·육성 및 맞춤형 수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수시, 돌산갓김치 · 거문도해풍쑥 해외상표 등록

○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여수의 대표 특산품인 돌산갓김치와 거문도해풍쑥이 미국과 일본에서 해외상표를 등록함에 따라 글로벌 브랜드로 명성을 다져나가고 있다.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역특산품인 돌산갓김치와 거문도해풍쑥의 지식재산권 권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해외상표 등록을 추진해 왔다.

○ 돌산갓김치와 거문도해풍쑥이 2014년 8월 일본에서 해외상표로 등록된데 이어 거문도해풍쑥이 지난해 12월 미국특허청에 등록됐다.

○ 이에 따라 6차산업의 기반조성은 물론 국내외에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돼 특산품 브랜드 관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해외상표 등록은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여수시 특산품의 해외 판로개척과 국내 유통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 특산품 상표보호로 상품의 신뢰도와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지역 재배농가와 제조업체의 소득을 높여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수시의 지역특산품 명품화 노력은 지난해 여수돌산갓김치와 거문도 해풍쑥이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각각 농정원장(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상과 농식품부장관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 또 거문도해풍쑥이 지난 3월 전라남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돌산갓에 이어 여수의 대표 특산품으로 인정받았다.

○ 한편 돌산갓김치와 거문도해풍쑥은 지난해 LA한인축제와 중국 베이징식품박람회에 참여해 1억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후 미국 떡 가공업체로부터 냉동쑥 60톤을 주문받는 등 해외수출에 활로를 뚫어가고 있다.

○ 시 관계자는 "돌산갓김치를 비롯한 여수의 대표 특산품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해 국내외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돌산갓김치와 거문도해풍쑥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농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여수시

중국 콜드체인구축사업 운송지원 본격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6. 5. 13.부터 한국 농식품의 중국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을 통한 중국 시장개척 강화를 위해「중국 콜드체인구축사업」운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중국은 우리 농식품의 2위 수출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냉동냉장 물류 인프라가 취약해 냉동·냉장식품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 그러나, 이번 중국 콜드체인구축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중국내 농식품 물류분야의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함에 따라 한국 냉동·냉장식품의 중국내륙 시장을 확대하는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중국의 수입 관문지역에 위치한 칭다오 aT물류센터와 청뚜·충칭 등 7개 지역에 운영 중인 해외공동물류센터 간 냉동·냉장 보관 및 운송지원을 통해 중국내 콜드체인 운송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 지난달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중국 냉동·냉장 1위 물류업체인 CJ롱칭물류유한공사를 콜드체인 위탁물류업체로 선정하였다.

○ 중국 콜드체인구축사업은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aT가 운영 중인 칭다오물류센터를 통해 청뚜·충칭·시안 등 중국 내륙지역으로 운송되는 한국산 냉동·냉장식품 운송비의 80%를 지원하며,

○ 운송차량은 정기노선과 비정기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운송 효율성과 이용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중국 대도시뿐 아니라 내륙지역 소비자도 한국 냉동·냉장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히고,

○ "이번 콜드체인 운송 개시에 따라 중국내륙으로 운송과정 중 발생하는 상품 파손, 변질 방지는 물론 이용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한국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농식품부는 대중국 시장개척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4월 「對중국 농식품 수출확대 대책」을 발표하고 aT, 농진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수출업체 등과 함께 대중국 홍보, 마케팅, 물류지원 및 수출유망품목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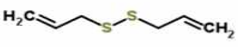
마늘·양파의 식품향료 소재 생산을 위한 자원 활용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마늘·양파 수확 후 비상품 구근이나 과잉생산 또는 묵은 구근을 사용하되 썩지 않은 구근을 사용함

- 특히 마늘·양파의 구근이 썩은 것은 이취(악취, 구린내)와 독성의 원인이 되어 정유나 식품추출물로 사용할 수 없음

○ 마늘정유 생산을 위해서는 비상품용 생마늘을 사용하거나 수확 후 1년 묵은 마늘도 식품향료용 천연정유 생산용으로 활용함



마늘·양파 데일리설파이드

구 분 (생물기준)	재 배 생산량 (kg/10a)	비상품용 (kg/10a)	원 료 판매가 (천원)	정 유 생산량 (L/10a)
마늘	1,405	281 (건마늘 112.9)	562	1.6 (건마늘정유기준)
양파	6,458	1,292	448	2,584 (50% 향미유)

❑ 개발기술 파급효과

○ 일반농가에서 불용화 되기 쉬운 비상품 마늘·양파, 과잉생산 또는 묵은 재고량 대량 소비로 수급조절 가능

○ 10a당 마늘은 562천원, 양파는 448천원 농외소득 향상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 조경숙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구마 포장박스 구성요소 및 표시사항 분석

❑ 개발기술 내용(2015년 연구결과)

○ 도매시장에 고구마를 구매할 경우 포장박스 표시사항의 중요순위는 상품 투영성 21.2, 보호성 19, 운반편리 15.1, 생산자 정보 8.8, 브랜드 명칭 4.7, 상품 과대포장 유무 4, 포장박스 재질 3.5, 포장박스 크기 3.4, 포장박스 디자인 0.7, 포장박스 색상 0.2% 순임

○ 온라인에서 고구마를 구매할 경우 포장박스 표기사항의 중요순위는 상품의 보호성 19.8, 상품 투영성 12.4, 생산자 정보 10.2, 상품의 운반편리 8.8, 브랜드 명칭 8, 상품 과대포장 유무 4.8, 포장박스 재질 2.4, 포장박스 디자인 1.7, 포장박스 크기 1.5, 포장박스 색상 0.1% 순임

○ 포장박스 소재(재질)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구입단위(중량)에 따라 47.6, 사용 후 분리수거 편리성 15, 친환경 소재 9%등 임

❑ 기술개발 파급효과

○ 포장박스에서 브랜드 노출로 농장의 인지도 향상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직거래 채널별 판매비율 수준 및 온라인 경력에 따른 소득 증감률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온라인 채널별 판매비율 수준에서 쇼핑몰 판매비율이 많은 경영체 전년도 대비 소득증감률 23.9 증가 , SNS 판매비율이 많은 경영체 56.5, 쇼핑몰과 SNS 판매비율이 동일한 집단은 47.1 증가, 오프라인 직거래집단 37.1% 증가로 SNS 판매비중이 높은 집단의 소득 증감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거래 비율에 따른 전년도 대비(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소득 증감률은 평균 40%가 증가하였으며, 직거래 비율이 30% 미만은 17.5% 증가, 30~69%는 34.9% 증가, 70~99%는 42.9% 증가, 100%는 56.9% 증가

○ 간접거래 비율에 따른 전년도 대비 소득 증감률은 평균 40%가 증가하였으며, 간접거래 비율이 30% 미만은 53.2% 증가, 30~69%는 30.1% 증가, 70~99%는 24.9% 증가, 100%는 29.3% 증가

○ 온라인 유통경력에 따른 전년도 대비 소득 증감률은 평균 40% 증가, 3년 이내 58% 증가, 5년 이내 43.4% 증가, 10년 이내 21.8% 증가, 10년 초과 28.6% 증가

❑ 개발기술 파급효과

○ 직거래 채널별 판매비율 수준 및 온라인 경력에 따른 소득 증감률 제시로 직거래 개별 경영체의 안정적 경영 유도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전남지역 과원 잡초발생양상 및 관리기술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과원(배·사과·감·매실) 잡초발생현황 : 45과 178종

- 우점잡초 : 바랭이·쑥·망초·쇠별꽃·닭의장풀·강아지풀 등

○ 과원(배·사과·감·매실) 외래잡초 발생현황 : 14과 41종

- 우점잡초 : 망초·토끼풀·선개불알풀·둥근잎나팔꽃·소리쟁이 등

○ 관리기술

- 방법 : 수관하부(나무 밑)의 부직포 멀칭, 기계예취, 초생재배, 제초제 살포
- 관리방법별 잡초방제율(%) : 부직포 100, 기계예취(3회) 63.8~95.1, 초생재배 5.5~98.4, 제초제(3회/년) 72.4~98.8

<배 과원>

<사과 과원>

<감 과원>

<매실 과원>

순위	배	사 과	감	매 실
1	닭의장풀	토끼풀	바랭이	바랭이
2	쇠별꽃	쇠별꽃	쑥	쑥
3	개여뀌	개불알풀	망초	망초
4	새포아풀	바랭이	쇠무릎	쇠별꽃
5	7피	질경이	닭의장풀	닭의장풀

과원별 우점잡초 순위

❑ 개발기술 파급효과

○ 수량 증가(%) : 잡초무방제 대비 부직포멀칭 8.7~53.4, 기계예취 35.6~90.2, 초생재배 31.7~81.2, 제초제 41.3~104.5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권오도

볍씨 파종기 이용한 직파재배로 농업 경쟁력 높인다

- 도암면에서 12일 벼 무논점파 직파재배 시연, 금년 10ha 시범재배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선도 농업인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암면에서 벼 무논점파 직파재배 시연을 지난 12일 실시하였다.

○ 이번에 실시한 무논 점파 직파재배는 물이 늘 차있거나 쉽게 물을 댈 수 있는 논(이하 '무논')에 파종기를 이용하여 볍씨를 일정한 간격으로 파종하는 재배방법이다.

○ 기존 직파재배에 비해 어린모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초기 생육이 우수하고 직접 파종해 잡초성 벼 발생을 억제 뿐 아니라 적정한 깊이의 골에 볍씨가 점파됨으로써 뿌리 활착이 좋아 벼 쓰러짐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또한, 벼 무논점파 직파재배는 벼 육묘와 모내기에 필요한 볍씨 파종, 상자쌓기, 못자리 관리 등 기계이앙재배를 위해 필요한 노동력과 자재비용을 절감 할 수 있어 기계이앙대비 벼 육묘·이앙 단계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35.3, 생산비는 22.8% 절감이 가능하여, 현재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가장 이상적인 벼 재배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소장은 "쌀 관세화 및 FTA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군 쌀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비용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인 벼 무논점파 직파재배 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 출처 : 화순군

톡쏘는 갓! 쌉싸름한 상추! 토종 엽채류 맛도 기능성도 up

– 항암 성분이 많은 갓 “토리홍”, 항스트레스 성분이 많은 상추 “흑하랑”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시니그린(항암성분)이 많은 갓과 락투신(항스트레스 성분) 함량이 많은 상추 2종에 대해 품종 출원하였다고 밝혔다.

○ 토종 갓은 시니그린 등 글루코실레이트 함량이 많아 매운맛이 강하며 토종 상추는 락투신이라는 하얀 진액이 많아 쌉쌀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 그러나 이러한 토종 특유의 맛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가 낮았으며 또한 수량이 적은 토종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품종 개량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그 결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 품종에서는 토종 특유의 맛이 사라져 가고 있었으며 토종 종자는 독농가에서 유지하면서 자가 소비용으로 텃밭에서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향토음식과 웰빙 먹거리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옛 맛을 찾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토종 종자 수집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47작목 267종을 확보하여 보존하고 있다.

○ 수집된 토종 엽채류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으로써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종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종자 증식과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면서 시중 품종에 비교하여 차별화할 수 있도록 작목별 주요성분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기능성분 함량이 높은 수집종에 대해서 순계분리 후 집단 선발, 고정화 과정을 거쳐 육성된 계통에 대해서 품종 출원하였다.

○ 이번에 육성한 재래갓 「토리홍」은 항암성분인 시니그린 함량이 2.09㎍/㎎으로 시중 적색 품종(1.19㎍/㎎)에 비해 높았으며 기존 재래종에 비해 추대가 늦고 여름철 적색 발현이 우수하며 매운맛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재래상추 「흑하랑」은 잎색이 흑적색으로 쓴 맛이 강하며 항스트레스 성분인 락투신 함량이 3.74㎍/㎎으로 시중 적상추(0.03㎍/㎎)에 비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장미향 연구사는 “이번에 육성한 갓과 상추 품종은 현장 실증을 거쳐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시중 품종에 대비 수량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재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병행할 것”이며 또한 “기능성과 함께 재래종에 가까운 옛 맛과 잎 색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토종만의 아이템 발굴, 시중 품종과의 차별화에 주력하여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갈색날개매미충 발생, 적기방제 당부

– 발생시기 1주일 빨라져 확산 우려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사과·산수유·블루베리 등 유실수와 산림을 크게 훼손시키는 갈색날개매미충 발생시기가 1주일 빨라짐에 따라 적기에 방제작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갈색날개매미충은 연 1회 발생하는데 나뭇가지 속에서 알로 월동하여 5월 중순에 알에서 깨어나는데 금년 4월의 평균기온이 작년에 비해 1.6℃ 높은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5월 상순에 알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 이는 작년에 비해 일주일 빨라졌으며, 그에 따라 방제적기도 5월 하순으로 앞당겨지게 됐다.

○ 2011년 국내에 처음 발생하기 시작한 갈색날개매미충은 5년이 지난 작년에 6,958ha로 넓게 확산되었는데, 이 해충의 주 확산방법은 기주식물을 찾아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단거리 확산과 산란된 조경수 또는 자동차 등 대중교통 수단에 붙어 이동하는 장거리 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

○ 전남에 발생 확인지역은 구례·곡성·순천·광양·화순·나주·담양 등 9시·군 17읍·면 395ha이며 점차 더 많이 확산될 전망이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생태 및 발육단계별 방제적기, 재배농법에 따른 방제자재를 선발하여 매년 시·군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쉽게 소탕되지 않는 이유는 농경지 인근의 야산에 서식하는 해충을 방제하려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연구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곤충의 행동습성과 선호하는 먹이, 빛 등을 이용하여 성충을 효율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유인포획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고구마 재배 기계화로 노동력 28, 생산비용 22% 줄인다

- 농촌진흥청, 2019년까지 밭농업 기계화율 70%로 확대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0일 전북 김제에서 고구마 생력기계화 연시회를 열어 새로 개발·보급하는 농기계 및 작업기의 사용방법 등을 소개하고, "2019년까지 기계화율을 70%로 확대'하기 위해 밭농업 기계화 현장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연시회에서는 고구마 생력기계화 연시회에서는 고구마 묘를 심고 바로 피복할 수 있는 기계 4기종, 그리고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운 후 고구마 묘를 심는 기계 4기종에 대한 작업방법을 보여줬다.

○ 또한 고구마 줄기를 파쇄하는 기계 및 수확용 기계 7기종을 전시하는 등 고구마 재배의 전 과정 기계화와 관련된 농기계를 선보이면서 그 활용방법을 보여줬다.

○ 김동철 농가(전북 김제)는 지난해 120ha의 면적에 자체 생산한 무병묘 고구마를 농기계로 재배한 결과, 벼 재배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소득을 올려 올해는 150ha로 확대 재배를 계획하고 있다.

○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농업 현장의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밭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작목별 전 과정 기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는 조·기장·수수·팥·감자 등에 대한 기계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아울러 밭농업 기계화 현장 확산을 위해 전문가 50명의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기계화 기술, 기계화 적응 품종 및 재배양식 표준화, 생산성 향상기술 등 개발한 새로운 기술의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 밭농업 기계화 시범사업을 2014년 70, 2015년 83, 2016년 121개소로 확대 추진하며, 특히 2016년에는 콩·조·수수·기장·귀리·팥·고구마 등 밭작물을 중심으로 생력 기계화 기술, 기계화 적응 품종 및 재배양식, 생산·가공·유통기술 등을 포함한 묶음 기술위주로 하고 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새로 개발한 신기종 기술과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에 대한 세미나, 연·전시회 개최, 밭농업 기계화 촉진 및 임대사업관리 교육지원 등 22과정 1,560명에 대해 농기계 전문기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379개 임대사업소의 인력양성 교육을 위한 운전, 점검정비, 안전이용 기술교육과 밭농업 기계화 촉진과 실습교육용 농업기계를 지원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이범승 농촌지원국장은 “밭농업 기계화를 촉진하려면 밭농업 생력 기계화 기술과 기계화 적응품종, 재배양식, 배수개선, 이모작 재배기술 보급과 생산·가공·유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기술 보급과 임대사업관리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따른 주산단지 중심 기계화, 규모화와 생산부터 가공·유통체계 구축으로 밭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식량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발효사료용 겉보리, 출수기 35~37일에 수확하세요

– 보리 발효사료 만드는 최적 수확시기와 제조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사료용 겉보리를 발효사료로 만드는 최적 수확시기를 소개했다.

○ 사료용 보리는 황숙기(누렇게 익는 시기) 초기에 이삭과 짚을 가축에게 먹이는 청보리와 황숙기 후기에 수확해 건조·보관한 다음 먹이는 건조보리로 나눌 수 있다.

○ 청보리와 건조보리를 이용하는 중간 시기에 보리를 발효해 사료로 이용하면 수확시기를 분산할 수 있다.

○ 또한 수확시기에 비가 올 경우 수확 후 건조시설에서 말리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는 '출수 후 수확일에 따른 사료용 겉보리 수량 및 발효품질'을 실험한 결과, 35~37일에 수확한 보리가 사료 품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때 수확한 보리의 수확량은 ha 당 5.13톤으로 가장 많고, 발효사료의 pH는 4.2, 젖산함량은 1.71%로 품질이 우수했다.

○ 반면, 이전에 수확하면 수량이 떨어지고, 이후에 수확한 것은 발효가 되지 않아 적합하지 않았다.

○ 곡실(알곡) 발효사료는 비닐봉지, 곡물용 톤백(마대), 발효제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다.

○ 먼저 콤바인을 이용해 출수 후 35~37일 정도인 겉보리를 곡실 부분만 수확한다.

○ 곡물용 톤백 (90×90×148㎝, 800㎏)에 비닐봉지(0.09㎜)를 넣고 수확해둔 보리 곡실과 발효제(처리농도 : 106CFU) 1ℓ를 함께 넣는다.

○ 곡물용 톤백을 밀봉한 다음 통풍이 되는 그늘진 창고에 보관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김보경 작물육종과장은 "청보리와 건조보리를 이용하는 중간 기간에 곡실을 발효사료 형태로 활용하면 수확시기를 분산할 수 있고 건조비용 등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맥류 붉은곰팡이병 예찰로 피해 줄인다

– 멀티형 무인 포자 채집기 개발... 10일 군산서 시연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0일 전북 군산 보리 재배지에서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을 정확히 예측하는 '멀티형 무인 포자 채집기'를 개발해, 이를 선보이는 시연회를 열었다.

○ 지난해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률은 9.5%로 다소 높은 편으로, 이 병에 걸린 곡물을 먹을 경우 독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찰과 방제가 중요하다.

○ 기존 붉은곰팡이병 방제 방법은 배수로 정비, 적용약제 살포 등이 있으며, 병 발생 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 맥류 붉은곰팡이병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므로, 공기 중 포자 밀도를 측정하면 병 발생 예측이 가능하다.

○ 채집한 포자는 배지에서 배양한 후 분자생물학적 진단방법(PCR)을 이용해 병원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기는 지난해 특허출원(10-2015-0155588)했으며,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상품화 단계를 거쳐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보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이 많은 시기에 발생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찰을 추진하고 적기 방제대책 자료로 활용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5월 10일 군산에서 개최한 시연회에서는 '멀티형 무인 포자 채집기'를 이용해 붉은곰팡이병 발생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 농촌진흥청 허성기 재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맥류 병해충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향긋한 곰취 새 품종 선보인다

– 평창에서 쌈용 곰취 새 품종 현장평가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1일 알싸하고 쌉싸래한 맛이 일품인 곰취 새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고령지농업연구소(평창)에서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 이번 자리에서는 농업인, 시·군센터 관계자들에게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곰취 품종과 계통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선발하고

○ 또한, 계통별로 맛을 비교해 보는 식미평가와 나물과 쌈 요리를 맛보는 시식 시간을 가졌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는 2007년 곰취 품종육성을 시작한 이래 2016년까지 쌈마니·곰마니·다목이·수마니 등 4품종을 육성했으며 이들 품종은 재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쌈마니 ▲ 다목이 ▲ 곰마니 ▲ 수마니

○ 평가회에 선보이는 품종은 시장에서 반응이 우수한 '쌈마니' 등 4품종과 '2007-2' 등 13계통이다.

○ 쌈마니·다목이·곰마니 품종들은 습지에서 잘 크는 곰취와 습지 적응력이 뛰어 나고 세력이 왕성하며 맛이 씁쓸한 한대리곰취를 교배해 선발한 품종으로 토양 적응력이 높고 흰가루병에 강해 여름에 하고(더위시듦)현상이나 연작(이어짓기)장해 발생이 적다.

○ '2008-1-1' 계통은 잎 크기가 작고 포기당 잎 수가 263개 정도로 많다. '2007-15-1' 계통은 잎 크기는 중간 정도이며 포기당 잎 수가 200개 정도로 많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서종택 농업연구관은 "앞으로 더욱 우수한 곰취 품종을 육성해 확대 보급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8. 정책 동향

◈ 스마트 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기술 세미나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5월 3일 빅데이터 전문가, 농촌진흥청 및 각 도 농업기술원 연구자, 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빅데이터 활용기술은 시설재배 온실에서는 외부 기상인 온도·습도 등의 환경정보가 1분 단위로 축적되고 있으며 작물 생육상태가 1주 단위로 저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작물이 생장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찾아주는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

○ 또한 시설하우스의 환경관리는 천장에 부착된 센서들이 환경정보를 실시간 감지하여 자동으로 통제하고 곳곳에 부착된 센서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된다. 이들 정보는 LTE망 등 무선망으로 IoF(Internet of Farm) 서버에 자동 저장된다.

○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일간·주간·월간·작기(作期)별로 분석해 특정 작물에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찾아내어 수확량 예측이 가능하고, 병충해 진단프로그램과 에너지 절약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 농촌진흥청과 전남농업기술원은 2014년부터 시설재배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약 54개 항목의 빅데이터를 분석 연구하여 농가에 컨설팅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남 화순에서 토마토 농사를 지은 배진수(한울농원) 대표의 농장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으로 가공용 토마토의 생산량이 3.3㎡당 67에서 120kg까지 증가되었다.

○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박사는 "농업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기술이 아직 도입단계 이지만 시설원예 작물의 수량증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및 컨설팅 연구를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수도권 도시민 대상 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교육 실시

- 전남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 홍보 및 소득창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한국융합기술진흥원(수도권) 임직원 30명을 초청하여 도시 소비자 교육을 5월 13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와 화순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귀중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 특히, 메주 꽃피는 나주 윤이정 대표의 장아찌 만들기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전남 식문화를 도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체험이었다.

○ 농업기술원 김창옥 농업교육과장은 "앞으로 도시 소비자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남의 우수농산물 홍보를 강화하여 도·농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소과일 생산 확대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1일 최근 소비자 선호도와 유통시장의 추세에 맞는 중·소형 사과·배 생산을 위한 공동연수회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사과·배 주산단지 전국 12시군 150여 명의 농업인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해 중·소과 생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 △ 사과·배 중·소과 생산사업 추진 계획 △ 2016년 사과·배 수급 동향과 중·소과 소비전망, △ 최근 도매시장의 중·소과 동향과 전망, △ 고품질 사과·배 생산기술(사과·배연구소), △ 사과·배 중·소과 생산 농가 사례(문경·울산 농가) 순으로 진행하였다.

○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사업은 사과·배를 인위적으로 크게 키우지 않고 품종 고유의 특성대로 재배해 소비자 및 수출 시장 기호에 맞는 맞춤형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며 지속적인 현장상담을 통해 사과·배 중·소과 생산을 위한 착과기술과 결실 안정기술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김봉환 과장은 “사과·배 중·소과 생산 사업은 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명절 선물용과 평상시 소비용 과일을 균형있게 생산해 우리 과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소비자 신뢰, 양곡표시제 순회교육 등 현장에서 답을 찾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즉석도정 쌀 공급업체의 양곡표시 정착을 통해 정부 3.0 가치 실현을 하고자 4. 19.(화)부터 양곡표시제 순회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순회 교육은 4. 19.(화) 경상 권역 농관원 경북지원에서 시작하여 4. 28.(목) 충청 권역 농관원 충남지원까지 이어졌으며,

○ 즉석도정 코너를 운영하는 전국 총 466지점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 및 각 입점 즉석도정 가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 주요 내용, 양곡관리 법령 및 양곡표시방법 등으로 안내되었다.

○ 특히, 즉석도정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한 표시 방법 설명 등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 교육 실시로 교육의 질을 높였다.

○ 금년부터 권역별로 시행된 교육은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표시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유통업체 및 가공업체에 개선토록 교육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양곡관리법령, 단속사례 및 민원 응대법 관련 내용을 담은 양곡표시 사후관리 가이드를 제작하여 1,400권을 배부하였다.

○ 책자는 주요 대학교 103, 지자체 162개소 등 유관기관에게 제공하였고, 양곡표시 단속 및 민원사례 등 양곡관리를 현장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이번 가이드 배부로 양곡표시제도 조기 정착 및 양곡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쌀 관세화, FTA체결 확대 등 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신·구곡을 혼합한 저가미 등 취약품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과 사전 교육을 병행하여 올바른 양곡표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때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곡부정유통 신고센터 : 1588-8112 (신고포상금 : 위반 물량에 따라 5~100만원)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9. 해외 농업정보

◈ 미국서 부는 '혼밥' 열풍

- 즉석식품·간식 등으로 홀로 식사하는 소비자 증가, 1인용 소포장 제품 진출 유망 -

○ 미국에서 홀로 식사를 하는 '혼밥' 문화가 유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수출업체들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간편 조리식품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미국 시장조사 업체 하트만그룹(Hartman Group)에 따르면, 미국 내 1~2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서 식사를 즐기는 이른바 '혼밥족'이 늘고 있다. 하트만그룹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침의 경우 53, 점심은 45, 저녁은 24%가 혼자 먹는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세끼를 모두 혼자 먹는 사람은 4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실제로 이런 문화 때문에 미국에서는 혼자 먹기 편한 인테리어를 한 식당과 1인용 간편 조리식품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의 혼밥 문화를 반영한 틈새상품의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즉석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 조리식품, 소포장 제품 진출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 뿐만 아니라 혼밥족 중 다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때문에 유기농 재료로 만들거나 MSG와 같은 화학조미료 사용을 최소화한 간편 조리식품 진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란 먹거리 시장 현황

- 경제재재 해제 식음료 수요확대 전망 -

○ 우리 농식품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란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할랄인증 획득을 추진해 제품 신뢰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 올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이란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식품을 비롯해 화장품, 전자제품 등 유망상품을 앞세워 이란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 특히 농식품의 경우, 아직 이란에서 한국산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지난해 대이란 농식품 수출실적은 2,600만 달러, 수산식품은 2,100만달러다. 세계무역정보 서비스 업체인 월드 트레이드 아틀라스(World Trade Atlas) 보고서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품목의 수출실적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신선식품의 경우 지난 2014년 98만 7,000달러에서 2015년 25만 6,000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소스류는 지난 2013년 4,388달러 규모로 수출된 이후, 더 이상이 수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농식품의 이란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제품 신뢰도 확보를 위해 현지 할랄인증을 획득할 것을 조언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5. 16.(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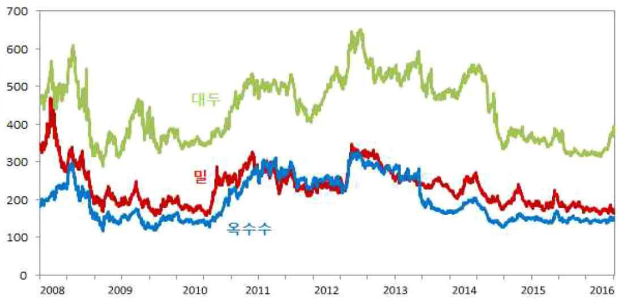
숏포지션 커버 등 기술적 거래로 금일 밀 선물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6.5.13)	전일대비	전월평균 ('16.4)	2015 평균
밀	170.86	▲1.4%	173	186
옥수수	150.39	▼0.8%	147	148
대 두	387.64	▼0.9%	354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 (밀, 옥수수, 대두: 5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거래인들의 숏포지션 커버(과매도 청산)로 상승 마감하였음. 미 농무부가 2016/17년 미국 밀 기말 재고량이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밀 선물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은 약세로 남아 있음. 다음 주 초반 미 대평원 남부에 강우가 예보되었으며 이번 비로 경질밀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품질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대두 롱포지션과 옥수수 숏포지션의 스프레드 거래와 숏커버링세 유입 등 기술적인 거래로 가격이 지원을 받아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하였음. 일부 미국 옥수수 생산자들이 대두 및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가격은 추가적인 지지를 얻음. 유럽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루마니아로부터 NON-GOM(비유전자변형) 옥수수 44,900톤을 수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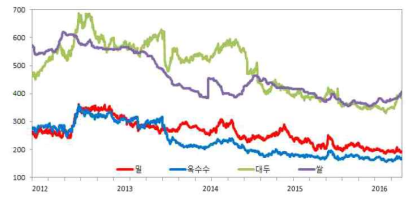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금주 초반 가격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거래로 금일 하락 마감하였음. 미국 생산자들이 농무부의 3월 전망보다 옥수수 파종면적을 줄이고 대두를 더 많이 파종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하방 압력이 있었음. 미 농무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 수출업체가 미국산 대두 420,000톤을 수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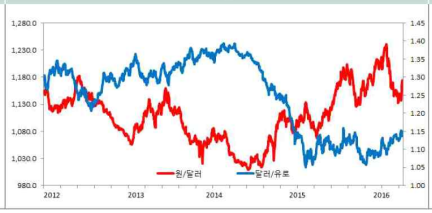
관련동향

- 남미의 생산 전망 우려 및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대량 수출을 포함한 단기 수요 호조 등으로 옥수수 수출가격 상승
- 국제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 OPEC 원유 생산 증가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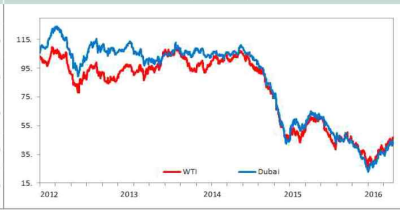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4	▲1.6%	환율	원/달러	1,164.1	▼0.3%
	옥수수	173	▲3.0%		달러/유로	1.1379	▼0.4%
	대두	406	▼0.5%	국제유가	WTI	46.21	▼1.0%
	쌀	406	–		Dubai	44.39	▼0.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6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5.12(수출가격), '16.5.13(환율), '16.5.13(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sonmy@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2016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농업인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2016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 참가자격은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이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5. 11. ~ 6. 24.까지이다.

○ 참가방법은 농업기술원 누리집(www.jares.go.kr)에 등록된 양식으로 우수 사례를 작성하여 각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 경진분야는 ICT 활용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역 내 문화 확산, 스마트팜 활성화, 창업 아이디어 경진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진대회 우수사례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월 30일에 우수자 15명을 선발하여 7월 중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전남농업기술원(농업경영연구소장 임경호)은 ICT 융복합 기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전남 농업인들에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 문의 : 061)330~2582 전남농업기술원 김덕현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유기농 명인 신청하세요

– 전남도, 채소·과수 등 6개 분야 6월 15일까지 시·군서 접수 –

○ 전라남도는 현장의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저비용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농업인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6월 15일까지 시·군을 통해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 그동안 전라남도는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을 위해 2010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까지 20명의 유기농 명인을 지정해 친환경 유기농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품목별로는 벼 8, 밭작물 2, 과수 6, 채소 2, 축산 1, 특용작물 1명 등이다.

○ 전라남도는 지정된 품목별 유기농명인의 재배기술과 농자재 제조법 등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 담양·보성·영암의 친환경농업 교육관에서 유기농 명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매년 400여 명에게 '유기농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유기농 명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유기농법을 실천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저비용 유기농·축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 전라남도는 신청 농업인이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지침을 만들어 시군 등에 배포했다.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6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주간
전남농업정보 85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